

# 포드, 3만 달러 전기 픽업 내년 출시

## 베이조스 지원 스타트업과 정면승부, 대중형 EV 경쟁 본격화

포드가 3만 달러를 목표 가격으로 한 신형 전기 픽업트럭을 공개하며 '합리적 가격대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 올해 전기차 평균 거래가가 약 5만5,000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가격은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평가다.

포드의 도전은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신생 업체 슬레이트 오토와 맞붙게 된다. 슬레이트는 지난 4월, 2만7,000 달러짜리 2도어 전기 픽업을 내년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슬레이트가 앞서지만, 전문가들은 포드의 '유니버설 EV'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텔레메트리 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 샘 아부엘사미드는 "슬레이트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전기차 시장은 최근 성장세가 둔화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판매량이 8배 증가했으나, 2025년 상반기 기준 시장 점유율은 8.6%로 주저앉았다. 조기 수요층이 이미 차량을 구입한 데다, 연방정부의 7,500달러 세액공제가 지난달 예산안 통과로 9월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3만 달러 이하의 '대중형 EV'가 필요하다는 데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포드는 3년 전 롱비치에 비밀리에 '스캠크릭스' 프로젝트를 꾸려 유니버설 EV를 개발했다. 켄터키 루이빌 공장에서는 새로운 제조 공정을 도입해 생산 단가를 낮출 예정이다. 쿠마르 갈호트라 최고운영책임자는 "저가화를 위해 기능이나 시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품과 공정을 단순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슬레이트는 '최대한 단순한 전기차'를 표방한다. 차체를 강철 대신 회색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하고, 라디오와 전자식 창문을 없애며, 인포테인먼트는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연결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단순화"라며 회의적이다. S&P 글로벌 모빌리티의 스



▲ 포드 CEO 짐 팔리가 포드 유니버설 EV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포드

테파니 브린리 수석 애널리스트는 "2도어 차량이 거의 사라진 시장에서 4도어를 내놓는 포드가 훨씬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슬레이트는 시장에 1년 먼저 진입할 수 있다는 점과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를 포함해 7억 달러 이상을 투자받은 자본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이미 사전 예약은 10만 대를 넘어섰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 회사 모두 가격 목표와 일정 준수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기차 업계에서 계획보다 수천 달러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거나 생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이다.

포드는 유니버설 EV를 통해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슬레이트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발표로 '합리적 가격대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음은 분명하다.

# 중국 '0마일 새차' 중고차로 수출

## 작년 50만대 해외로 덤핑, 경쟁사 시장 잠식

중국 정부가 자국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춤이 없는 '제로 마일 중고차'를 외국 시장에 대량 덤핑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차량들은 한 번도 도로를 달리지 않았음에도 '중고차'로 등록되어 해외로 수출되며, 이를 통해 중국 내 판매 실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경쟁사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한 자동차 분석가는 로이터에 "이는 4년 가까이 이어진 가격 전쟁의 결과"라며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절박해졌다"고 말했다.

### ■ 2024년에만 50만 대 덤핑

로이터에 따르면 덤핑되는 차량의 대부분은 내연기관 차지만 전기차도 일부 포함돼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약 50만 대의 '제로 마일 중고차'가 해외로 덤핑되었다. 이 과정은 매우 단순하고 노골적이다. 실제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하는 절차 없이 제조사나 대리점이 직접 수출업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곧바로 등록 및 번호판 발급을 거쳐 해외로 선적한다.

### ■ 지방정부도 적극 지원

중국 내 최소 20개 지방정부가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출 리베이트 신속 처리, 추가 수출 라이선스 발급, 대규모 물류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수출업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 시설을 신축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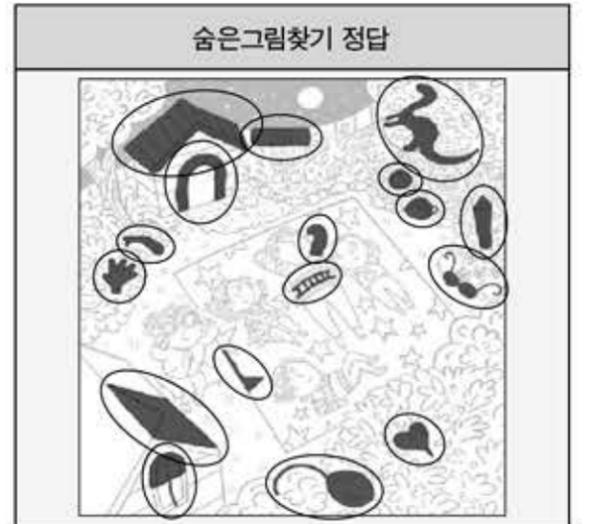
쓰촨성은 지난해 발표한 정책 문서에서 알리바바와 같은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수출 시장 구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쓰촨성 내 100개 이상의 자동차 제조사가 이 플랫폼을 통해 해외 고객에게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전기차만 300여 개 제조사 경쟁

2021년 기준, 중국 전기차 시장에는 300개 이상의 자동차 제조사가 경쟁 중이며, 이는 내연기관차 제조 인프라와 별개다. 중국 정부는 2019년 자동차 수출 제한을 해제한 직후부터 제로 마일 덤핑 정책을 적극 지원해 왔다.

중국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두 전략은 여러 부작용

을 낳고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1년 샤오야칭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관은 자동차 산업 내 기업 간 통합이 불가피하며 정부가 산업 성숙을 위해 개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 Home Remodeling